

당내 여론 수렴 뒤 출마 결심... '대권주자' 몸집 불리기

이낙연 '당권 도전' 결정

당권주자들과 개별 회동

홍영표·우원식과 3파전 될 듯

지지율 압도 대세론 형성될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8월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히면서 당권 경쟁 구도가 출렁이고 있다.

이 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의사를 굳힌에 따라 당권 도전도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이 위원장이 당권까지 잡는다면 당내 지지기반을 확대하면서 확실한 대권 주자로서 몸집을 불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최근 일부 당권 주자들을 잇따라 만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등 내부 조율 끝에 당 대표 출마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당권 주자간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당 대표 경선도 '이낙연 대세론'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관측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홍영표·우원식 의원은 이 위원장과 상관없이 전대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당내 친문(親文·친 문재인) 성향의 표심 향배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당 안팎에서는 초반 당권 레이스가 이낙연·홍영표·우원식 의원의 3파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영남권에 기반을 둔 대권 잠룡인 김부겸·김두관 의원이 아직까지 당권 도전 여부를 확정하지 않아 이들의 출마 여부도 향후 당 대표 선거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위원장 측은 27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최근 이 위원장은 홍영표·송영길·우원식 의원 등 당대표 출마 주자들과 잇따라 개별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비롯해 홍영표·송영길·우원식 의원 등 당권 주자들을 만나 당내 여론을 폭넓게 수렴했고, 결국 '정면 돌파'를 택했다.

지난 24일엔 고홍 출신 송영길 의원을 만나 "당권 도전을 도와달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했고 송 의원은 "뚝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이 위원장과 같은 전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함께 출마한다면 호남 표 분산 등으로 당권을 잡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 위원장이 사전 조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위원장은 최근 홍영표 의원과 만나 전당대회 출마 관련한 의견을 나눴고 홍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출마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난 26일에는 우원식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직접 찾아 10~20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우 의원은 완곡하게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불출마 선언이 있따 르면서 전당대회가 사실상 이 위원장을 추

대하는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당내 코로나19 극복의 선두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이 위원장과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것에 명분과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위원장이 대표가 되더라도 대선출마 시 당권·대권 분리규정에 따라 내년 3월에 사퇴하게 된다는 점도 다른 주자들의 최종 선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이 당권을 잡는다면, 대권 가도를 위한 당내 기반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권 주자로서의 높은 지지율에 비해 당내 기반은 취약했다는 평을 받는 이 위원장이 당 대표로 선출되면 초선 비율이 높은 광주·전남 당선인들도 국회 연착륙의 토대를 닦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일부 당권 주자들과의 경쟁 과정에서 '흠집'이 날 수 있고, 이는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위원장이 당내 친문 성향 의원들의 표심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의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이 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결정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당권을 잡더라도 대선에 나서려면 임기 2년을 못 채우고 내년 3월에 중도 사퇴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권과 대권을 동시에 노리는 이 위원장로서는 '6개월 당 대표 임기'가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미래 먹거리' 4차산업 혁명 선도 기대

지역혁신전략산업 선정과 과제

광주, 스마트 가전·광융합 포함

전남, 에너지 신산업등 7대 산업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21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에 포함된 광주와 전남의 지역혁신전략산업은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광주, 지역 혁신산업 속도 낸다=광주의 혁신사업은 지역 주력산업인 ▲스마트 가전 ▲광융합 ▲에너지산업 ▲디지털생체 의료 ▲자율주행차 편익전장 ▲스마트 금융 등 6개 분야다. 스마트가전 사업은 에너지전과 에너지 관리를 위한 가전제품 및 제어시스템 기업 육성, 인공지능 융합 가전제품 육성 등이 주요 사업이다.

광융합산업은 광소자 및 광영상 정보기기, 광통신 기기, 스마트 광센서, 스마트 조명산업 육성 등이 포함돼 있다.

에너지신산업은 에너지 분산발전·관리·저장시스템 등의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신시장 창출, 기술개발 역량 강화 지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디지털생체의료산업 분야는 생체의료기

기와 생체의료서비스 관련 기업 육성과 산학병연 공동기술개발 추진 등을 통한 생체의료산업 고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규사업으로 포함될 자율주행차 편익전장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동차 경량화 내외장재 소재 등 편익전장 부품기술 개발과 야간 자율주행 헤드램프·영상처리 기술을 포함한 광융합전장 부품기술 개발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남, e-모빌리티·드론 등 7대산업 혁신전략산업화=전남의 혁신산업은 e-모빌리티·중소형선박 및 기자재·드론·바이오 헬스케어·소재부품·중대형 2차전지·에너지 신산업 등 7대 산업이다. 내년도 지원 예산은 국비 453억4000만원, 지방비 517억4000만원 등 모두 980억8000만원으로, 부처 검토와 기획재정부 및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모빌리티산업은 전기동력을 이용해 생활교통·물류배송

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1~2인용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이다. 전남도는 영광 일원을 자율주행 실증기능을 갖춘 e-모빌리티산업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고 있다.

중소형선박 및 기자재산업에도 지역혁신전략산업 지원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전남에는 대형조선소 1개(현대삼호중공업)와 중형 조선소 7개를 비롯, 모두 280개의 조선 및 조선기자재 업체가 있다.

드론산업은 전남도와 고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신산업이다.

바이오 헬스케어산업의 경우 전남도는 지난해 3단계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올해는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실증사업과 산업용 드론 기업지원 기반 구축사업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 헬스케어산업의 경우 전남도는 지난 4월 '2030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수립, 오는 2030년까지 4조4535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 신산업 및 중대형 2차전지 산업의 경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울촌산단에 위치한 포스코케미칼 등 2차전지 관련 기업, 한국전력 등 관련 산업체가 밀집한 점이 전략 산업 선정에 영향을 준 것 보인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화려함 속 위엄과 품위...꽃중의 꽃 모란



김은영의 '그림 생각'

(314) 오월의 꽃

오월의 화단을 압도하는 꽃은 단연 모란인 것 같다. 장미가, 수국이, 꽃양귀비가, 제라늄이 피었다고 저마다 뽐을 내지만 한 송이만도 모란은 화려함 속에 지니고 있는 위엄과 품위로 꽃들 사이에서 돋보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복숭의 문인 구양수도 "모란에 이르러서는 굳이 꽃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꽃이라고 한다"고 했듯 모란은 꽃 중의 꽃, 꽃 중의 왕이라 예찬하기에 손색이 없는 듯하다.

모란 사랑이 지극한 중국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 모란을 화단에 심고 가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히 일반민중 생활 속에 침투되어 민화 속에서 활짝 피어났다. 모란이 상징하는 부귀가 집안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정통 화화보다는 민화화 화백(1917~2005)의 '꽃-모란'(1990년 작)은 모란을 통해 봄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정열이 담긴 붉은 모란과 소담스럽게 핀 흰색 모란, 선적인 느낌을 강하게 담아 표현한 이파리가 간결하면서도 활력이 넘친다. 강진출신으로 해남 윤씨 가문의 예술



윤재우 작 '꽃-모란'

적 혼을 이어받은 작가는 모란꽃을 그리면서 강진의 김영랑의 시를 떠올렸을까? 야수파적인 원색의 화면과 윤곽선을 사용함으로써 모란이 소박한 사골 락에서도 멋진 정원의 주인공 못지않게 찬란할 수 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영랑이 노래했듯 이토록 화사한 꽃이기에 모란이 피었다가 시들어가는 모습에서 마치 봄의 전부가 떠나가듯 찬란한 슬픔의 한 장면으로 느껴졌을 지도 모르겠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